



힘든 삶에 포근한 온기 전하다



다미엔 차젤레 '라라랜드'
꿈을 찾는 청춘의 열정 그려

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심장병 환자의 새로운 희망 담겨

조성규 '어떻게 헤어질까'
고양이와 이웃간의 가족에 표현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스틸 컷.



뮤지컬영화 '라라랜드'의 스틸 컷.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삶에 포근한 온기를 전할 영화 3편을 오는 15일 상영한다.

첫 번째 작품은 영화 <위플래쉬>로 전 세계 영화상을 휩쓴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뮤지컬영화 <라라랜드>이다. 영화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서로의 무대를 완성해주는 배우 지망생과 재즈 피아니스트를 통해 꿈을 찾는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로맨스 작품이다.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은 노래와 댄스, 피아노 연주 등 수개월에 걸친 완벽한 준비와 연기로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41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제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및 여우주연상, 제52회 시카고국제영화제 개막작,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신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다니엘이 두 아이와 함께 런던으로 이주한 실업자 케이트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감독은 작품을 통해 영국의 부조리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예리

하게 짚는다.

제69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사립사상영화제 상영에서 전회 매진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만남과 이별의 순환을 따뜻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어떻게 헤어질까>는 인간의 영혼이 들어간 고양이 암마와 고양이 안에 들어간 영혼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자 나비, 암마의 주인이자 나비의 이웃 이장이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별하는 작품이다.

영화 <산타바바라>, <어편이의 꿈> 등을 연출한 조성규 감독의 작품으로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이다. 걸그룹 출신 박규리와 영화<회고 그리고 사랑>의 주연으로 주목 받은 배우 서준영 그리고 영화 속 두 배우 사이에서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해내는 고양이 함께 호흡을 맞춰 기대를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 참조.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완주 청소년문화의집 여가부장관 표창 3관왕

완주군 청소년문화의 집(관장 이종하)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국 사업 평가 결과, 전북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의 영예를 안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기반조성,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성과, 기관장참여도, 행정기여도 등 총 5개 영역 51개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활발한 지역연계를 통한 타 기관과 차별화 된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의 전폭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전국 최우수 아카데미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외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최우수 활동 기관 및 우수활동 청소년(이명재 완주중2) 선정을 합쳐 올해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3개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문화재청, '제다'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

16일 국립무형유산원서 개최 3부에 거쳐 전문가들 발표·토론

문화재청은 '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 갖는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잎·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튀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찧기·압착·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7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다'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제다를 효과적으로 보존·전승하는 방법과 한국 차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총 3부에 걸쳐 '차' 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정순일 교수(울광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한국 제다의 역사적 전승양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조선시대 제다 기법과 전승문화의 특징, 일제강점기 이후 제다의 지속과 변화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한국 제다의 전승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제다의 민간전승 현황, 사찰문화에 따른 제다의 전승현황

발표가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 한국 제다의 진흥방안과 미래가치에 대하여 해외 제다관련 문화재 사례를 통한 한국 제다의 전승 방안 모색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보존·전승방향이 발표된다. 발표이후엔 연세영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아울러 차 문화에 대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16~18일까지는 명차 시음회인 '행다'다. 프로그램이, 17~18일에는 김동곤 다편인이 들려주는 '제다행다'다. 강의를 30명씩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문의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02)719-1495). /정해은 기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익산문화재단 '숨바꼭질' 전
오늘부터 숨리골 작은 미술관서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을)은 '숨바꼭질' 전을 오는 13일부터 숨리골 작은 미술관에서 연다. '숨바꼭질'은 숨리골 작은 미술관이 위치한 평화동을 중심으로 2017년 재개발을 앞두고 사라질 공간 속에 숨어 있는 시간과 이야기를 찾아 전시를 펼친다. 시민들과 어린이·예술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숨바꼭질 3팀이 각기 협업을 통해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사진·그림·스토리가 담긴 문화예술명함 등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익산문화재단 뒤편 주차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방공호'가 80여 년 만에 전시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지역의 공간성과 지역민의 시간성 등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참여 어린이들이 방공호 탐방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그림도 함께 전시된다.

이와 연계해 재단은 사라질 문화원형을 구술채록집의 형태로 정리하기 위하여 원종희(원광대학교 역사학과), 박미소(도시공학과), 장민희(문화기획자) 등이 2017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철거가 예정되어 사라질 공간 속 시간과 이야기를 찾아 문화원형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관람객들에게는 익산의 아픈 역사에 대한 통찰과 애환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숨바꼭질 전은 13일 오후 6시 30분 전시 참여 어린이들의 합창곡을 시작으로 오픈식을 갖는다. 오는 31일까지(24일·25일 휴관).

*문의 (재)익산문화재단 063)843-8817. /정해은 기자

2016 추억콘서트, 15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아침과 정겨웠던 한해를 정리하며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6 추억콘서트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 감동과 웃음으로 공연된다.

원로코미디언과 7080개그맨, 그리고 개콘세대의 젊은 개그맨들을 두루 아우르는 대표 개그맨 임용수씨가 MC를, 영화즐거움 인생 OST로 잘 알려진 불꽃이, 1989년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로 랩을 시도한 가요 김삿갓 등으로 잘 알려진 가수 홍서범씨와 코메디 겸 가수로 알려진 라동근의 뽕송겨서 미안합니다 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웃음 넘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곡 빈스레 사람의 트로트 가수 "황민"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젊은이의 감성을 톡톡 튀게 할 안벽 퍼포먼스와 음악! 스타제국의 떠오르는 비상 보이그룹 '임팩트', 그리고 2013년 KBS 뮤직뱅크를 통해 가요계 신고식을 치른 '투란'이 데뷔 앨범 '뽕뽕뽕'으로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음악을 가지고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질 것이다. /김제=락노태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13일>

▷쥐띠
48년생: 지나친 과단은 손해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0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니 조심하라.
72년생: 윤행은 싫고 내실을 다지는것이 필요한 운이다.
84년생: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운이다.
61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하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망신을 당한다.
73년생: 실물수가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물건은 소중히 간직하라.
85년생: 냉파가 따르니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한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후에는 액운이 따르는 반길 반흔의 운이다.
62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한 하루가 될 수 있다.
74년생: 무심코 한 말로 인해 큰 파장이 뒤따른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토끼띠
51년생: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니 마음 놓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63년생: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75년생: 다른 사람의 갑언이성을 주의하라.
8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이다.

▷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보다는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64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실이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76년생: 이미 운은 와 있으나 게으름이 발목을 잡게 된다.
88년생: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 이르다.

▷뱀띠
5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5년생: 화내는 것도 잠시이다.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고 중요하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주 막힘이 생긴다.

▷말띠
54년생: 정신이 산만하니 집중하기 어려운 운이다. 세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78년생: 수일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운이니 출타는 삼가라.
90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양띠
55년생: 마음이 산만한 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계획하기에는 좋지 않다.
67년생: 사람과의 모임을 갖거나 식욕은 있으나 많은 말은 삼가라.
79년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부득이하게 출타할 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사고의 위험이 있다.
68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92년생: 자중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옆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9년생: 지나친 고집은 불화의 원인이 된다.
81년생: 판단을 할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93년생: 출행하면 디치거나 아플 수 있다.

▷개띠
46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일이 무겁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되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구분이 필요하다.
70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으나 그 외의 일은 불리하다.
82년생: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59년생: 동기간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71년생: 인덕을 볼 수 없는 운으로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운이다.
83년생: 여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